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구조: 호수성과 재분배*

박 수 경
고려대학교

박수경(2019),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구조: 호수성과 재분배」, 이베로 아메리카연구, 30(1), 33-60

초 록 15세기 중반 쿠스코를 기반으로 성장한 잉카인들이 주변 지역을 군사적으로 정복하면서 타완틴수유가 성립되었다. “4개 지역”을 의미하는 타완틴수유는 흔히 잉카제국으로 불리며, 1530년경에는 남북으로 4000km에 이르는 영토와 천만 명에 이르는 주민을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타완틴수유로 복속된 지역들은 잉카인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지역의 정치경제 구조를 유지했으며 중앙으로서 쿠스코는 지역적 독자성과 공존하는 집권화를 유지시켰다. 안데스 사회의 호수성은 재분배와 함께 타완틴수유의 기본 원리로 작용했다. 본 논문은 칼 폴라니와 존 무라의 논의에 기대어 호수성과 재분배를 중심으로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구조를 분석한다.

핵심어 타완틴수유, 안데스, 잉카, 호수성, 재분배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1009890).

I. 들어가며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원주민’이라는 화두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를 이해하는 하나의 축으로 다루어진다. 현대사회에서 라틴아메리카 원주민은 국가중심의 주류문화에서 동떨어진 고립된 집단, 따라서 경제적 저발전 상태의 주민집단으로 다루어지거나, 바로 그러한 이유로 국가 외부에 존재함으로써 발현 가능한 정치적 대안의 주체로 파악되었다. 전자의 경우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처해있는 경제적 저발전과 지역 간 불균형의 문제를 보여주며, 후자의 경우 원주민 운동과 원주민 사유에서 출발한 새로운 정치적 기획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심어준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 안에서 원주민은 근대적 발전이라는 규범에 의해 평가되는 대상이 되거나, 근대적 발전이라는 규범에 관한 대안의 생산자로서 파악된다. 따라서 원주민 집단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연구에서 언제나 ‘문제적’이다.

그러나 이처럼 원주민이라는 화두가 갖는 무게에 비해 역사적 존재로서 ‘원주민’을 성찰하고, 그 역사성에 기반 하여 사회적 구성물로서 ‘원주민’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다. 원주민이라는 화두를 어느 방향에서 다루든지 이러한 몰역사성 혹은 초역사성은 그러한 화두로부터 의미 있는 서사를 이끌어내는 것을 방해한다. 역사성이 결여된 채 회자되는 정치적 집단은 그 집단 외부의 환상의 산물일 공산이 크다. 환상은 그 대상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대평가하기 쉽다. 현대 라틴아메리카에서 원주민이라는 화두가 지니는 무게는 그 안에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를 파악하기 위해 동시대적 과거인 원주민 사회를 이해해야 하며, 근대국가 성립 이전 원주민 사회를 파악하기 위해 현재적 관점이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 포착해야 한다. 현재 안에 머물고 있는 과거와 과거에 삽입된 현재를 고려해야 과거와 현재를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주민 사회를 둘러싸고 사회학과 역사학이 만나는 지점을 조명하지 않으면, 그것의 역사적 현재는 불투명해진다.

1) 본 논문에서는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의 다종족성을 조명하기 위하여 일반적

이러한 관점에서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Tahuantinsuyu)¹⁾의 정치적 구성을 다루는 본 논문은 현대사회의 원주민을 이해하기 위해 원주민 사회가 경험한 장기역사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한 사회는 물역사적이고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구조적 속성의 지속과 변형을 통해 분석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현대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그 역사성에 천착할 것을 요구한다. 선행연구가 보여주듯 최근 주목받는 안데스 사회의 탈식민사상과 원주민 중심의 정치적 기획은 이 사회의 역사성에 기대고 있다. 현대 원주민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공동체 문화와 그러한 문화를 유지시키는 정치경제적 구조는 스페인 접촉 이전 사회와의 연속성을 보여준다. 본 논문은 그러한 안데스 사회의 역사성을 성찰하기 위하여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구조를 분석한다.

II. 본론

1.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방향

안데스 원주민 사회와 관련하여 국내 연구 경향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 시대 텍스트를 바탕으로 담론적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강성식 2008; 우석균 2005; 2012; 2013b; 2015)이다. 식민지 시대 텍스트에 관한 연구는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에 관한 간접적 연구와 다름없다. 본 논문에서도 언급할 예정이나, 특히 식민지 시대 연대기는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 연구를 위한 자료로서 취급된다. 연구목표와 방법론에 따라 식민지 시대 연대기는 역사학 자료인 동시에 문학 및 담론의 연구대상이 된다. 둘째, 2000년대 이후 주목받기 시작한 안데스 원주민의 다양한 정치적 기획과 대안적 인

으로 사용되는 ‘잉카’ 또는 ‘잉카제국’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타완틴수유’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잉카’는 타완틴수유 통치자의 지위, 즉 ‘군주’를 의미하며, ‘잉카제국’은 쿠스코를 기반으로 한 잉카인과 이들이 복속시킨 지역 사이의 관계를 드러내지 못한다. 타완틴수유라는 용어가 본 논문이 밝히고자 하는 안데스 사회의 복잡성을 더욱 명확히 드러낸다.

식론에 관한 연구(김은중 2008; 2015, 조영현·김달관 2012)이다. 2000년대부터 여러 안데스 국가에서 등장한 탈식민 사상과 정치적 기획에 관한 연구는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에 대한 현재적 관점을 논의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21세기 대안사상과 정치기획의 발상은 스페인 접촉 이전 사회구조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데스 사회의 경제제도와 정치구조를 다루는 연구(강정원 2014, 김항섭 2017, 우석균 2013a)는 각기 다른 주제와 시대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를 기술하는데 지면 일부를 할애하고 있다. 식민지 시대 미타제도와 안데스 호수성에 기반한 정치경제관계를 분석한 이러한 연구들은 본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와 연속선에 위치한다.

이처럼 국내 여러 선행연구가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에 대해 부분적으로 또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데스 사회의 역사성을 충분히 조망하기에는 축적된 바가 적으며, 스페인 접촉 이전 타완틴수유를 직접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부재하다. 잉카의 팽창과 멸망에 관한 로스트워로 우스키 데 디에스 칸세코(Rostworowski de Diez Canseco)의 논의를 소개한 논문(우석균 2013a)이 유일하게 타완틴수유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안데스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자의 앞선 연구(박수경 2014, 211)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원주민 사회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원주민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때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원주민’은 스페인인과의 관계 안에서 규정된 정체성의 범주이므로 원주민으로 규정된 집단 내부에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식민지 시대 도입된 원주민공동체는 행정단위이자 법률적 지위를 갖는 정치적 단위로 기능하며 ‘원주민’이라는 통합된 정체성을 발명해냈다. 따라서 원주민 사회 내부의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비가시화 되었다. 그러나 스페인 접촉 이전 존재했던 지역적 다양성은 스페인에 의해 ‘원주민’으로 형식적으로 동질화된 이후에도 사회적 메커니즘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해왔다. 어느 시기의 안데스 사회를 다루든지 그러한 다양성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타완틴수유의 정치구조를 분석할 때도 내부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는 고고학적 의미의 문명 또는 문화의 영역에서 ‘잉카문명’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용어로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를 통칭할 때 두 가지 한계가 드러나는데, 첫째 “문명”이라는 용어로 인해 스페인 접촉 이전 사회를 역사와 상상의 경계에 위치지우는 경향이 생긴다. 문자가 부재했던 안데스 사회의 모습을 추정하기 위해서 고고학 연구와 스페인 접촉 이후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에 의지하는데, 이러한 연구 조건은 종종 안데스 사회에 대한 ‘역사학’이 불가능하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더구나 ‘고대문명’을 향한 대중적 관심은 그러한 경향을 통속화시킨다. 국내에서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에 관한 연구가 매우 드물다는 점은 그러한 경향에 균형을 맞출 평형추가 존재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둘째, 안데스 사회와 ‘잉카문명’을 동일시함으로써 안데스 사회가 다종족 사회였다는 점이 부각되지 않는다. 그 결과 스페인 접촉 시기 안데스 지역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의 내부 구성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를 역사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한편, ‘중앙’으로서 쿠스코와 그 외 지역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종족적 특징을 갖는 타완틴수유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가능해질 것이다.

스페인의 정복과 식민제도의 이식은 안데스 사회에 결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것이 안데스 사회가 경험한 유일한 변화는 아니었다. 오히려 안데스 사회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첫 번째 결정적 변화는 쿠스코를 기반으로 성장한 잉카인의 지배였다. 안데스 지역의 다양한 종족성에 바탕을 둔 정치단위들은

2) 타완틴수유가 얼마나 중앙집권화된 전근대국가였는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중앙의 군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위는 지역 세력에 의해 제한적이었으므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약한 국가였지만, 지역을 통합하는 물리적 기반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전근대국가라는 조건에서는 중앙집권화된 국가였다.

타완틴수유라는 거대한 우산 아래 처음으로 통일성을 요구받았으며 집권화²⁾를 경험했다. 타완틴수유를 붕괴시키고 그 자리에 들어선 스페인 식민당국은 타완틴수유가 마련한 통일성에 유럽문화를 주입함으로써 손쉽게 식민 지배제도를 안착시켰다. 중앙권력으로서 쿠스코와 주변부 사회 간에 형성된 지배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스페인의 정복이 안데스 사회의 정치관계에 가져온 변화의 강도를 상대화하여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는 다수의 촌락 공동체와 문화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발달해온 안데스 지역 정치단위들의 분권화와 중앙으로서 쿠스코가 시도한 집권화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타완틴수유는 해발고도에 따라 다양한 생태환경 조건을 가진 넓은 면적의 영토, 지역적 다양성, 산재된 촌락 공동체의 독자성에도 불구하고 중앙권력으로서 쿠스코의 권위를 유지시키며 국가로 성립되었다.

2. 타완틴수유에 대한 역사학 관점의 변화: 왕조사에서 다종족성 분석으로

본 논문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타완틴수유를 직관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으로 옮겨 살펴보는 것이지만,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타완틴수유가 그 두 가지 영역의 경계 또는 교차점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스페인 정복 이후 16세기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은 안데스 사회의 역사를 재구성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³⁾ 안데스 지역에 관한 연대기로 분류되는 문헌의 가장 초기 형태는 파나마에서 근무했던 스페인 관리들이 작성한 서신과 간략한 보고서들이다. 그리고 1532년 11월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가 알타우알파(Altahualpa)를 생포한 후 곤살로 페르난데스 데 오비에도(Gonzalo Fernandez de Oviedo), 에르난도 피사로(Hernando Pizarro) 등 정복사업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의해 안데스는 처음으로 이방인에 의해 문자로 기록되었다. 1550년대 페드로 데 시에사 데 레온(Pedro Cieza de Leon)의 『페루 연대기』(Cronica del Peru)와 후안 디에스 데

3) 안데스 지역 연대기와 관련하여 Pease G. Y.(2010)을 참고할 것.

베탄소스(Juan Diez de Betanzos)의 『잉카인물대전』(Suma y Narracion de los Incas)은 구술 사료 채집을 바탕으로 스페인 정복 이전 타완틴수유의 역사를 재구성했다. 1580년대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Inca Garcilaso de la Vega)가 작성한 『잉카왕실사』(Comentarios Reales de los Incas)는 스페인 접촉 이전 안데스 사회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출처로 각광받았다.

이러한 연대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타완틴수유의 역사는 20세기 후반 고고학, 인류학, 문화기술지 등의 발달과 함께 실증적 연구와 함께 보완되고 있다. 그러나 구술채집에 의존한 정보를 1차 사료로 삼고 있다는 점, 정복자의 언어인 스페인어로, 스페인인의 세계관에 적응한 사고체계 속에서 기록된 역사라는 점에서 15세기 전후의 타완틴수유의 역사는 종종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역사라는 근대적 역사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직관에 둘러싸인다. 최근에는 연대기 이외에도 고고학 발굴 등 연구방법의 다각화를 통해 실증적이고 객관적 역사연구에 더욱 다가갔지만, 스페인 접촉 이전 시대에 발생한 사건의 정확한 연도, 선후관계, 인과관계를 밝히기에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타완틴수유에 대한 이해는 다소 불투명하고 어슴프레한 추정과 직관을 동반한다. 달트로이(D'Altroy 2003, 87)가 언급하듯 식민지 시대 초기 작성된 약 50가지 연대기의 사료적 가치를 따지는 일은 오늘날에도 불가능한 과제로 남아있다.

1차 사료가 제한적이라는 한계 속에서 타완틴수유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잉카왕조사의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었다. 16세기 이후 연대기 작가들은 잉카왕조사를 재현하고자 노력했고, 18세기, 19세기 역사학자들은 그러한 연대기를 발굴하고, 그것을 사료삼아 타완틴수유의 역사를 기술했다⁴⁾. 1572년 이전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잉카계보는 적게는 6명에서 많게는 12명이다(Covey 2006, 180-181). 그러나 역사학에서 실증적으로 파악한 통치자는 총 5명으로 잉카 파차쿠텍(Inca Pachacutec), 투팍 유팡키(Tupac Yupanqui), 와이나 카팍(Huayna Capac)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스페인의 정복 직전 권력투

4) 16세기 연대기 가운데 다수는 18세기가 되어야 출판되거나 19세기에 발견되었다.

쟁을 벌였던 와스카르(Huascar)와 아타우알파이다. 그러나 각 통치자의 재임 시기와 기간에 대해서는 연대기 작가에 따라 상이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Covey 2006, 185). 영토 확장을 계기로 타완틴수유의 첫 번째 통치자로 간주 되는 잉카 파차쿠탉의 재임 시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⁵⁾ 잉카의 연대기를 재구성하고 정확한 연도를 추정하는 것은 역사학 내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타완틴수유의 역사를 실증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이처럼 왕조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타완틴수유를 성공적으로 통합된 ‘하나의’ 정치단위로 간주하는 경향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향은 연대기 작가들의 왕조사 기록 이외의 정보 부족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국가를 중앙의 왕조와 동일시하는 관념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잉카에 의해 정복된 안데스 지역에 대한 문헌연구와 고고학 연구가 진행되면서 타완틴수유라는 커다란 우산 아래 가려져 있던 여러 종족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고고학자인 존 H. 로우(John H. Rowe)는 1946년 그러한 연구 방향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⁶⁾, 1970년대부터 잉카인에 의해 정복된 안데스 지역의 다양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른 한편에서 1975년 존 무라(John Murra)는 종족집단 간의 호수성(reciprocidad)⁷⁾을 분석하여 안

5) 식민지 시대 연대기 작가인 카베요 발보아(Cabello Balboa)는 1438년부터 파차쿠탉이 잉카로 재임했다고 기록했으며, 그의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타완틴수유의 영토팽창도 1438년을 기점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쿠스코 인근에서 진행된 고고학 발굴에 따르면 잉카인이 주변 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것은 1300년 무렵으로 보인다(Covey 2006, 173). 본 논문의 목적은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는데 있지 않으므로 14세기 전반기를 파차쿠탉 재임기간으로 고려하고, 그가 수행한 군사적 정복을 중심으로 타완틴수유의 영토팽창을 다룬다.

6) 1940년대까지 스페인 정복 이전 사회는 ‘잉카’로 통칭되었으나, 로우의 고고학 연구와 함께 잉카 정복 이전과 이후의 구분이 가능해졌다(Flores Ochoa, 2005, 269). 1946년 그는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을 바탕으로 1530년경 타완틴수유를 구성하고 있었던 종족집단(tribe)과 지역(province)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현재까지 이 목록은 타완틴수유의 지역구성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자료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래 [그림1]은 이 목록을 바탕으로 1985년 티에리 사이냐(Thierry Saignes)가 작성한 지도를 달트로이(D'Altroy 2015, 55)가 재인용한 것이다.

7) 영어로 reciprocity와 스페인어로 reciprocidad는 호혜(互惠)성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데스 사회의 내적 관계에 대한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에서 우석균(2013a)에 의해 소개된 로스트워로우스키 데 디에스 칸세코의 연구(Rostworowski de Diez Canseco, 1988) 역시 종족집단 간의 관계를 통해 타완틴수유를 분석해온 연구 경향이 종합된 결과이다. 여기서 저자는 잉카왕조사를 연대기적 틀로 삼아 잉카인이 주변 지역을 복속시키는 팽창과정과 복속된 지역을 관할하는 제도의 발전사를 기술한다. 이처럼 1970-80년대 안데스 지역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향이 등장하면서, 인격화된 통치자로 표상되는 단일한 정치사회 단위로 이해되었던 타완틴수유는 다양한 사회집단으로 구성물로 해석되기 시작했으며, 각 종족집단들은 독자적인 정치단위로 간주되었다⁸⁾.

많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상호(相互)성 또는 호수(互酬)성으로 옮겨지는 것이 적절하다. 인류학에서 reciprocity는 대칭적으로 분류된 집단들 간의 이동을 의미하는데, 이동하는 것이 반드시 ‘은혜’를 의미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논의에 기대어 호수성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때 호수성은 인류학자인 리처드 섀왈드(Richard Thurnwald)와 브로니스로 말리노우스키(Bronislaw Malinowsky)에게서 유래한다(폴라니 1994, 325), 말리노우스키는 쿨라 교역에서 ‘주고 받는 행위’로서 호수성을 파악했다. 국내에 번역된 『초기 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폴라니 엮음, 1994)에서는 “호혜성”으로, 『거대한 전환』(폴라니 2009)에서는 “상호성”으로 옮겨졌다. 본 논문에서는 ‘받는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 ‘호수성’을 사용하였다. 이 번역어는 2016년 번역된 가라타니 고진의 『제국의 구조』를 참고하였다.

- 8) 이 글에서 사용하는 ‘종족집단’은 스페인어로 tribu, etnia, nación 등에 해당한다. 이러한 용어와 관련된 인류학에서의 논쟁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종족집단’은 언어, 문화, 경제적 관계, 정치적 관계 등에 따라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을 지시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러나 이렇게 구분된 종족집단들이 얼마나 독자적인 실체로 존재했었는지 역시 여전히 쟁점이다. 로우의 목록은 스페인 연대기 작가가 남긴 문헌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16세기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이 당시 안데스 사회를 정확히 분석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피스 G. Y.는 종족집단들 간의 구별이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인지 연대기 작가들에 의해 임의로 그려진 선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Pease G.Y. 1979, 99). 오늘날에도 그 모호함은 극복되지 않았는데, 연대기 작가들의 기록을 뒷받침할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불충분한 탓도 있으나 ‘종족성’(etnicidad)을 언어적 문화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진 탓이기도 하다. 즉 언어, 풍습, 종교 등을 공유하면서 형성된 문화적 정체성으로 종족집단을 규정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정치적 공동체로서 파악하려는 시도와 균형을 이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3.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를 파악하기

왕조사 연구에서 종족집단분석으로 연구경향이 이동한 것은 타완틴수유를 복합적인 정치체로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열었을 뿐 아니라,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잉카제국’이라는 통속적인 명칭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타완틴수유는 거대한 단일 정치체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의 특징은 다양한 종족집단으로 형성된 지방 세력의 독자성과 집권화의 균형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국가로서 타완틴수유의 성립 원리는 ‘제국’이라는 용어가 내포하고 있는 억압적이고 지배적이며 통일적인 성격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독자성과 쿠스코의 집권화 경향이 얹히면서 만들어내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즉 타완틴수유를 하나의 국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스코와 지역들의 권력관계 또는 쿠스코라는 매개와 무관하게 지역들 사이에 형성된 관계를 고찰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타완틴수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째, 왕조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둘째, 잉카군주로 대변되는 중앙권력 쿠스코 역시 하나의 지방 세력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타완틴수유의 형성은 안데스 지역에 산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정치단위와 촌락공동체가 쿠스코를 매개로 통합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지, 잉카군주라는 인격화된 권력의 일방적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왕조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극복되는 동안, 중앙권력인 쿠스코와 그 외 지역 사이의 관계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이미지로 형상화되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해석의 원형은 식민지 시대 연대기 작가들에게서 발견된다(Kummels and Noack 2011). 16세기 잉카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는 타완틴수유를 후원주의적 국가로 묘사했는데, 이런 이미지는 20세기 초 마르스크주의의 영향을 받은 페루 지식인들에 의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주의 국가의 이미지로 계승되었다.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José Carlos Mariátegui), 빅토르 라울 아야 데 라 토레(Víctor Raúl Haya de la Torre) 등 페루 원주민 사회를 재평가한 인디헤니스타 지식인들은 쿠스코가 수행한 재분배 기능에서 이상적

인 사회주의 국가의 원형을 발견했다. 반면 16세기 연대기 작가인 와망 포마 데 아얄라(Guaman Poma de Ayala)는 타완틴수유를 전제주의적 국가에 가깝게 묘사했다(Pease G. Y. 1979, 109). 이러한 이미지는 태양을 중심으로 형성된 종교적 이데올로기와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데스 사회를 복속시킨 쿠스코의 통치술을 연구한 20세기 인류학자들로 이어졌다. 에스피노사 소리아노(Espinoza Soriano) 등의 인류학자들은 안데스 각 지역의 노동력 징발과貢物납부를 강제했던 잉카인의 지배 체제가 쿠스코 내부의 통치 집단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데 기여한 바에 주목했다.

두 가지 이미지는 종종 대립적으로 해석되어, 타완틴수유는 억압 장치를 매개로 유지된 전제주의 국가 또는 사회적 평등을 실현한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갇혀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전근대국가로서 타완틴수유의 속성을 규정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성격을 대립시키는 대신, 일정한 영토 내부에서 정치경제적 관계의 조직화를 가능하게 했던 정치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한편에서는 지방의 자율성이 유지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전제주의라는 평가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중앙의 권력이 유지되고 있었다. 타완틴수유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두 가지 이미지는 배타적으로 대립되는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라 타완틴수유의 중층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두 가지 요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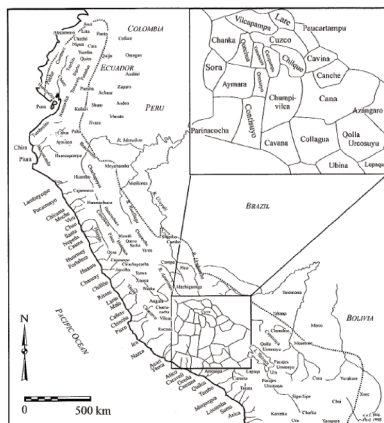
국가란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조직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타완틴수유라는 전근대국가가 조직되는 방식은 두 가지 힘의 갈등, 경쟁, 안정화에서 나타난다. 이 때 두 가지 힘이란, 중앙으로부터 자원을 후원받는 지역이 국가로 점차 통합되는 힘의 작용과 지역의 자율성을 유지하려는 힘의 작용이다. 후원주의적 국가의 속성과 전제주의적 국가의 속성은 상호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를 이루는 사회적 관계들에 내포된 속성들이다. 여기서 중심과 주변지역의 간에 성립된 관계는 ‘통합의 강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중앙권력으로서 쿠스코와, 쿠스코에 의해 통합된 지역 사이에 맺어진 관계가 억압적이었다고 단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여러 지역 세력이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의 권력구조의 일부로서 긍정적으로 기능했다. 또한 쿠라카(kuraca)라 불렸던 지역

지배계층은 쿠스코의 권위에 복종하며 해당사회 내에서 억압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타완틴수유가 출현하기 이전 사회관계를 규정하고 있었던 호수성을 보존하는 기능도 하고 있었다. 쿠라카가 해당지역 내에서 지배계층으로서 억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며 국가의 권력구조로 편입된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었다.

정확한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타완틴수유가 전근대국가로 형성되는 과정은 창카(Chanca)의 쿠스코 침입부터 시작된다. 알카비사스(Alcavizas)를 몰아내고 쿠스코 지역에 자리를 잡았던 잉카인은 창카인에게서 승리를 거두면서 앞으로 맞이하게 될 영토팽창 과정의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⁹⁾ 본격적인 영토팽창은 잉카 파차쿠텍이 쿠스코의 군주가 되어 주변 집단을 복속시키며 시작되었다. 정확한 시기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파차쿠텍은 창카를 비롯하여 소라(sora), 루카나(lucana) 등을 복속시키며 쿠스코 서쪽을 장악했고, 남쪽의 코야(colla)를 복속시켰으며, 아마존 밀림에 거주하는 치리과노(Chiriguano)와 맞닿는 동쪽 경계를 공고히 했다. 그의 아들 투팍 유팡키는 카하마르카에서 더 나아가 치무(chimu)를 굴복시켰다. 투팍 유팡키가 정복에서 성공하고 쿠스코로 돌아온 후 아버지인 파차쿠텍이 사망하지만, 그는 아마루 잉카 유팡키에게 쿠스코를 맡기고 영토 확장을 이어나갔으며, 이미 정복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반란을 진압하는 데 열중했다. 그리하여 투팍 유팡키는 현재 칠레 산티아고 남쪽에 위치한 마이푸(Maipu)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다. 그의 뒤를 이어 통치자가 된 와이나카팍은 계속되는 반란을 진압하여 안정시킨 후 북쪽의 차차포야스(chachapoyas)까지 복속시켰다. 파차쿠텍, 투팍 유팡키, 와이나카팍이라는 3명의 통치자에 의해 잉카인의 세력은 현재의 에콰도르부터 칠레 중부에 이르는 안데스 지역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타완틴수유의 마지막 통치자인 아타우알파는 피사로가 도착한 시점 와스카르와의 전쟁에서 막 승리를 거둔 참이었다.

9) 잉카인의 영토확장 과정은 Pärssinen(2003)을 참고할 것.

약 100년에 걸친 영토팽창과정으로 1530년 무렵 타완틴수유는 현재의 에콰도르에서 칠레 중부에 이르는 남북으로 4천km에 이르는 영토에 최소 5백만에서 최대 천 5백 만 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정치 공동체로 거듭났다¹⁰⁾. 타완틴수유의 주민은 20가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100여개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다양성을 보였다. 이처럼 언어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종족집단이 산재된 광대한 공간적 경계를 군사적으로 포섭한 후 이질적 사회들을 통합하는 정치적 원리를 고안해냄으로써 타완틴수유는 소위 ‘잉카 제국’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흔히 잉카‘문화’로 소개되는 공용어로서 케추아어의 사용¹¹⁾, 인터라이미에서 나타나는 태양숭배신앙, 잉카길로 불리는 도로시설 마련 등은 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잉카인의 정치적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



[그림1] D'Altroy 2015, 55에서 재인용

- 10) 타완틴수유의 인구 추정치는 학자마다 매우 다르다. 빠르시넨(Pärssinen 2003, 131-139)은 5개 표본집단을 토대로 5백만 인구를 추정한 로우의 계산법을 바탕으로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1530-1535년 사이 타완틴수유의 인구를 최소 5백만에서 최대 천 5백 만 명으로 추정한다.
- 11) ‘케추아’라는 용어는 스페인인의 오독의 산물이다. 해당 언어 구사자들은 ‘사람의 언어’라는 뜻의 루나시미(runasimi)라 부른다. 쿠스코 계곡에서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케스와 시미’(qheswa simi: 계곡의 언어라는 뜻)라는 말을 들은 스페인인이 그 말을 언어이름으로 착각하여 케추아어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추정된다. 현재 케추아어는 어족을 나타내는 말로 7개의 언어가 있다(D'Altroy 2003, 64-65).

된 장치였다. 즉 잉카문화 대부분은 다양한 종족집단에 최소한의 통일성을 부여하여 통합시키려는 중앙집권 통치기술의 일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정복을 통해 복속된 지역 일부에서는 지속적인 저항이 발생했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온전한 국가적 통합을 이루지는 못했다. 치무인은 쿠스코의 지배에 계속 저항했고, 쿠스코가 군사적으로 정복한 이후에도 계속된 적대관계 때문에 무기 소지 금지 및 높은 공물 부담 등의 차별을 받았다. 치무는 왕카(wanka)만큼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스페인인이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 조력한 집단이기도 했다(Pease G. Y. 1979, 113). 또한 빠르시넨(Pärssinen 2003, 73)이 언급하듯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정복과 반란, 재정복 과정 속에서 일부 지역과 쿠스코의 결합은 정치 공동체 간의 결합이라기보다 혼인 등을 통한 지배층 간의 결합에 머물렀다. 루파카(lupaqa)로 대표되는 티티카카 호수 인근 고원지대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타완틴수유의 국가권력에 의해 주민의 거주지 이동이 있을 만큼 정치적으로 중앙권력에 종속된 동시에, 무라가 “생태층의 수직적 관리”(el control vertical de un máximo de pisos ecológicos)라고 이름붙인 지역경제시스템이 유지되었고, 오히려 이러한 지역 경제시스템은 중앙권력에 의해 타지역으로 확대, 이식되었다(Pease G. Y. 1979, 110). 치무의 정반대편에는 지역 쿠라카가 잉카의 야나(yana)¹²⁾일 정도로 중앙 권력에 종속되어 있었던 차차포야스가 있다. 즉 지역마다 다른 통합의 정도를 보이면서도, 한편에서는 동질적인 문화와 종교적 이데올로기 등의 확산을 통한 국가의 상부구조를 구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자원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면서 잉카길과 케추아어 사용 등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하부구조를 발달시키는 국가로서 속성을 보여주었다.

12) 야나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종종 노예와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종속적 상태를 나타낸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한다. 가예고(Gallego 2017, 27)에 따르면, 야나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하급관리와 유사하다. 때로는 통치자인 잉카의 하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13) 달트로이(D'Altroy 2003, 22) 역시 전근대 제국을 연구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 마이클만을 소개하고 있다.

만(Mann 1991)의 국가론은 이러한 타완틴수유의 특징을 전근대국가의 속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공 한다¹³⁾. 즉 만은 “권력망으로서의 사회”라는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해온 정치공동체를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사회는 특정한 공간적 경계에 따라 규정되는 단일한 구조가 아니라 “상호 중첩되고 교차되는 사회 공간적 권력망으로 구성되어 있다”(Mann 1991, 14). 인간은 필요에 의해 “이념적,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권력과 그것의 조직”을 발달시켜 왔는데, 국가는 이 네 가지 권력을 효율적으로 조직화하며 등장한다(Mann 1991, 15). 만에게 국가란 일정한 영토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방식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전근대국가의 경우 그러한 “조직화”는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 강제력 없이 조직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회경제구조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회적 관계는 촌락 공동체 또는 다수의 촌락 공동체로 형성되는 지역 공동체들 사이의 밀접한 교류가 부재한 상태에서 각 공동체의 지배층들 간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다. 각 지역 공동체의 지배층들은 해당 지역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도 중앙권력의 권위를 수용한다.

이와 같은 만의 관점을 수용하여 타완틴수유의 특징을 살펴보면, 타완틴수유는 안데스의 여러 지역들이 발달시켜온 이념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IMEP)의 조직망이다. 안데스의 여러 지역은 쿠스코에 기반을 둔 잉카인들의 군사적 정복으로 타완틴수유에 편입되었으나, 이러한 ‘군사적 패배’라는 사건이 ‘타완틴수유의 일부’라는 상태로 전환된 이유는 쿠스코에 의한 군사적인 억압 뿐 만이 아니라 이념적, 경제적,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잉카인의 영토팽창은 만의 지적처럼 중앙에서 권력망을 조직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잉카인에 의해 군사적으로 복속된 후 각 지역 엘리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관계망을 형성하고, 그 안으로 흡수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루파카 문화권은 잉카와 혼인동맹을 통하여 잉카 정복 이전 지역의 정치질서가 그대로 유지된 반면, 치무 문화권은 잉카와 지속적인 대립과 반란으로 인하여 지역의 정치질서가 파괴되고 타완틴수유의 중앙권력에 직접 복속되었으며, 북부 내륙 지역

은 중앙에서 지역통치자가 파견됨으로써 기존의 정치질서가 급격히 변화되었다(Julien, 1983; D'Altroy 2015, 279; Pease G. Y. 1992, 22-23).

타완틴수유 대부분의 지역은 군사적 정복 이후 상당한 수준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변화가 동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권력에 의한 새로운 제도의 인식, 지방행정조직의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행정은 쿠스코에서 파견된 중앙관리와 토착세력, 즉 쿠라카의 협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여기서 토착세력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지방행정조직의 기능은 주민 노동력을 관리하고 공물 징수를 담당하는데 있었다. 지방행정조직을 갖춘으로서 안데스 지역 전반에 동질적인 정치질서를 적용시킨 잉카인의 지배는 전국적 차원의 생산 시스템을 만들어냈다. 즉 친족관계를 기반으로 자급자족 농촌 공동체가 흩어져 있고, 지역에 따라 경제 시스템이 불균등했던 안데스 사회는 타완틴수유의 확장 과정 속에서 대규모 노동력의 투입과 함께 잉여생산이 가능해졌으며, 균질적인 생산 및 유통 시스템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타완틴수유 확장 초기 고지대에서는 공동체 단위로만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졌고, 확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지역 차원을 넘어서지 못했다. 메소아메리카와 달리 안데스 지역에서는 물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할 시장이 발달하지 않았고, 해안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상호의존적인 경제가 발달해 있었다(D'Altroy, 2003, 314). 이처럼 비균질적인 상태의 경제적 관계망은 타완틴수유의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동질화 되기 시작했다. 중앙과 지역, 지역과 지역 간의 정치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계단식 집약 농업을 위한 관개시설 마련 등의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잉여생산물을 관리하며 일종의 시장의 기능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만이 제시한 네 가지 권력망(IMEP)을 다시 참고한다면, 타완틴수유는 15세기 전반기 군사적 권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15세기 후반기 중첩된 정치적 권력과 경제적 권력을 공간적으로 확대시키며 형성된 권력망이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흔히 잉카 문화로 소개 되는 인티 라이미(Inti Raymi)가 타완틴수유의 이데올로기 권력을 표현한다. 태양제를 의미하는 인티 라이미는 파차쿠텍에 의해 15세기 전반기부터 제도화되었다. 여기에 매년 각 지역의 사절

단을 쿠스코로 모이게 함으로써 중앙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고 지역과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태양신이라는 하나의 규범을 모든 지역에 관통시키려는 시도였다.

4.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적 권력망의 형성: 호수성과 재분배

앞 절에서 타완틴수유를 구성하는 여러 지역이 하나의 권력망을 이루는 여러 관계항들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때 각 관계항이 권력망에 통합되는 방식과 강도는 차이를 보인다. 각각의 관계항으로서 안데스의 여러 지역들은 독자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각각의 관계항은 하나의 권력망을 형성해낸다. “호수성”과 “재분배”는 그러한 권력망으로 작동하는 경제적 매커니즘이다.

먼저 호수성은 안데스 사회에서만 독특하게 발견되는 요소가 아니라 전자 본주의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경제체제이다. 1944년 폴라니가 주목한 호수성 개념은 무라의 논의와 함께 안데스 사회를 분석하는데 중요하게 논의되기 시작했다. 폴라니는 『거대한 변환』 4장에서 처음 “호수성”, “재분배”, “시장교환”이라는 경제 원리를 언급했다(폴라니 2009, 187-200). “호수성”은 대칭적 집단들 간의 교류를 통해 경제를 제도화하는 통합을 만들어내며, “재분배”는 하나의 중심으로 모였다가 다시 이동하는 패턴으로 경제를 통합한다. “시장교환”은 시장체제 아래에서 경제 통합이 이루어지는 패턴이다. 이 3가지 원리에 의해 경제가 조직되는데, 각 패턴은 발전론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른 부문에서 나란히 일어나기 때문에 전체 경험적 경제의 분류를 위해 그것들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들 중 하나를 지배적인 것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종종 불가능할 수도 있다”(폴라니 1994, 323). 폴라니는 자본주의 발달 이후 가격결정 시장을 전제로 하는 교환만이 유일한 경제 원리인 양 논의하는 시장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위의 3가지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의 경제원리를 호수적 관계와 재분배로 설명하는 폴라니의 논의는 타완틴수유의 성립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참고점이

된다. 타완틴수유는 안데스 사회에 호수성의 원리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키고 재분배라는 원리를 제도화시키며 형성된 권력들의 관계망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타완틴수유는 호수성과 재분배의 원리에 따라 일정한 공간 영역이 하나의 질서로 통합시키는 관계망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알베르티와 마예르는 “잉카 제국은 아이유 차원의 공동체 생산양식과 제국 차원의 생산양식의 상호침투에 따라 설명될 수 있는데, 아이유 차원의 생산양식은 대칭적 호수성으로 특징 지워지며, 제국 차원의 생산양식은 비대칭적 호수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두 경우 모두에서 재분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신화적-종교적 의미가 내포된, 현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전에 따라 체제가 기능 한다”(Alberti and Mayer 1974, 18)고 설명한다.

여기서 호수성이란, 개인, 집단 또는 기관들 간에 이루어지는 지속적이고 규범에 따르는 상호교환을 의미한다. 이때 교환되는 대상은 물질, 인적, 상징적 자원을 모두 포함하며, 이러한 자원이 오고 가는 과정에는 시장 또는 화폐가 개입되지 않으며, 즉각 이루어지는 교환과 달리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Alberti and Mayer 1974, 21). 예를 들어, A와 B사이에 노동력과 음식이 상호 교환되는데, A가 B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 B는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 과정은 나중에 B가 A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A가 B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과정으로 상호 교환된다. 안데스 사회에서 이러한 호수적 관계는 아이유라는 공동체 내의 구성원 간의 관계에서, 아이유와 아이유 사이의 관계에서, 타완틴수유가 성립된 이후에는 아이유와 국가의 관계에서 각각 나타난다.

먼저 아이유 내부의 호수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관계의 단위이자 관계항으로 등장하는 아이유에 대해 살펴보자면, 아이유는 안데스 지역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최소 단위이다. 고도이(Godoy 1986, 723)에 따르면, 16세기 스페인 정복자들은 이러한 아이유를 “동족, 가족, 왕족, 확장가족, 종족”등 주로 “혈통”으로 집단화되는 공동체로 이해했다. 20세기 전반기 인류학자들은 아이유를 인류학적 의미에서 “씨족”으로 파악했으며, 1980년대 이후부터 느슨하게 연결된 개인들의 공동체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시대에 따라 다른 개념

으로 이해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 아이유가 수행한 기능이 달랐으므로 안데스 지역 전체에서 아이유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친족적 성격을 지니는 촌락공동체로서 안데스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아이유의 집합은 더 넓은 외연을 가진 “종족”(etnia)을 구성하며(Alberti and Mayer 1974, 16), 타완틴수유를 형성하는 지역 단위를 이룬다. 촌락공동체로서 아이유와 그 집합으로서 종족집단은 친족적 성격을 지니지만, 이때 친족은 혈통으로 파악되는 관계라기보다 동일한 종교적 관념과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아이유는 공유지를 가지지만, 아이유를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키는 것은 공유지가 아니라 노동관계였다. 아이유의 토지는 환경조건과 경작주기를 고려하여 구획화 되었고, 아이유에 소속된 각 세대는 일정한 구획을 분배받았다. 그들은 분배받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곳에서 얻은 수확물은 전적으로 경작자의 재산으로 간주되었다. 아이유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공동노동에 참여하며 경작할 토지를 분배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였다. 밍카(minka)는 아이유 내부에서 나타나는 호수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일종의 품앗이이다. 혼인으로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지면 이들에게 주거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 도로 및 건물 등 공동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아이유 구성원은 서로 노동을 교환한다. 이러한 노동관계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 곧 그 아이유에 속해있다는 뜻이 된다.

잉카인들은 군사적 정복 이후 이러한 아이유의 토지를 세 가지 형태로 구분시켰다. 국가에 납부할 공물을 경작하는 토지, 태양신에게 바칠 공물을 경작하는 토지 그리고 아이유의 구성원들의 생계용 토지였다. 아이유가 타완틴수유로 통합되면서 국가에 납부할 공물을 경작해야 하는 노동 부담이 추가되었어도, 아이유가 본래 갖추고 있었던 노동관계를 조직화하는 내부 권력망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호수적 관계도 유지되었다.

둘째, 안데스 지역에서는 자급자족 형태의 촌락 공동체인 아이유가 호수적 관계를 통해 다른 아이유들과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호수적 관계는 안데스의

생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적 특징이 남긴 유산에 가깝다. 안데스의 다양한 생태환경은 넓은 면적보다 해발고도에 기인한다. 태평양 연안부터 해발고도 5000미터 이상의 만년설 지역까지 포함하는 안데스 지역은 해발고도에 따라 재배가능한 작물이 뚜렷이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안데스 지역은 해발고도에 따라 6개 지역으로 나뉜다. 해발고도 0~400미터의 찰라(chala)지대는 건조기후로 페루 연안 지역 곳곳에는 모래사막이 형성되어 있다. 해발고도 500~2300미터의 융가(yunga)지대는 고온다습, 2300~3500미터에 해당하는 케추아(quechua)지대는 적당한 강수량을 보이는 온난기후, 3500~4000미터의 수니(suni)지대는 목축이 가능한 기후, 4000미터 이상의 푸나(puna)지대는 한랭기후, 4800미터 이상의 한카(janca)지대는 만년설로 인간 활동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생태환경 때문에 여러 종족집단은 밀접한 교류를 통해 통합되는 대신 독립성을 가지며 발달했으나, 동시에 이러한 생태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호수적 관계에 의지하게 되었다. 버차드는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안데스 사회가 3가지 방법을 취했음을 지적(Burchard 1974, 213)하는데, 세대 단위로 노동력을 원거리 지역으로 파견하는 미타제도, 여러 집단이 제3의 장소의 토지와 자원에 대해 공동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 경작물과 코카¹⁴⁾를 비롯한 자원의 물물교환이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아이유들 사이에 맺어진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안데스 사회의 관계망을 형성해냈다.

무라는 안데스 사회의 관계망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종족집단이 해발고도에 따라 서로 다른 생태환경을 가진 안데스 산맥 기슭의 여러 경사지를 관리한 것을 “생태층의 수직적 관리”로 표현했다. 즉 안데스 산맥 고원에 거주하는 종족집단은 저지대로 노동인구를 이주시켜 취락을 건설한다. 이러한 취락이 위치한 곳은 본래 터전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다른 종족집단의 터전에 둘러싸인 일종의 섬과 같다. 이 ‘섬’으로 이주한 주민은 출신지역에서는 경작이 불가능한 작물을 재배하거나 물품을 취득하여 출신지역으로 보낸다. 이로써 해당

14) 코카는 지역 간 교환체계에서 일종의 화폐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지녔다.

종족집단은 터전이 위치한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저지대에 위치한 다른 생태층을 관리하며 자급자족 시스템을 보완한다. 그 결과 푸나 지대에서 목축, 수니 지대에서 감자 재배, 케추아 지대에서 옥수수 재배가 가능해진다. 푸나, 수니, 케추아 지대에 각각 ‘섬’으로 존재하는 취락으로 이주한 주민은 출신지인 본토의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에 그가 수행하는 이주노동은 공동체로부터의 배척이나 처벌이 아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다. 즉 그는 출신지에 집과 토지를 유지하며 이주노동을 수행한다. 이처럼 생태층의 수직적 관리는 하나의 종족집단 내에서 즉, 아이유라 부를 수 있는 공동체 내외부로 자원과 노동력의 흐름을 관리하는 경제적 제도이다. 화폐경제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에 의한 교환 대신 출신지 촌락과 노동을 수행하는 촌락 사이에 물자의 교류가 이루어진다. 이 역시 플라니가 호수성으로 개념화했던 경제 원리의 한 가지 양상이다. 또한 이러한 생태층 간의 호수적 관계는 출신지 촌락에서 노동을 수행하는 촌락으로의 이주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이주노동은 미타제도로 발전하여 타완틴수유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셋째, 타완틴수유 성립 이후 아이유와 국가 사이에 맺어진 호수적 관계는 쿠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재분배 과정과 결합된다. 먼저 잉카는 어느 지역을 군사적으로 복속시키면, 복속된 지역의 쿠라카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호수적 관계를 맺는다. 얼핏 보기에 지배-피지배 관계로 보이는 쿠스코와 주변지역, 잉카와 쿠라카의 관계는 그들 사이의 ‘주고 받음’으로 이루어진다. 쿠라카는 잉카가 주는 선물을 받고, 그에 상응하여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복무한다. 잉카로부터 받는 선물보다 더 많은 노동을 국가에 제공하기 마련이므로 상호 교환되는 잉카의 선물과 쿠라카의 복종은 불균형적이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하는 이른바 ‘잉여분’은 국가에 의해 재분배되어 궁극적으로 호수적 관계를 유지시킨다. 즉 호수적 관계는 잉카와 쿠라카 사이의 직접적 교환뿐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아이유에게 전달되는 자원을 통해서 쿠라카에게 도달하기도 한다. 타완틴수유의 성립으로 지역 차원에서 아이유들 간에 맺어진 호수적 관계는 국가 차원으로 확대되고, 쿠스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와 결합

된다. 타완틴수유 전역에 도입되는 경제적 원리 안으로 포섭됨으로써 타완틴수유는 하나의 정치경제적 단위로 기능하기 시작했다.

잉카와 쿠라카의 호수적 관계를 제도화한 것이 미타제도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아이유가 국가에 제공해야 하는 공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을 국가 차원에서 조직화 하는 것이다. 아이유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생태층의 수직적 관리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켜 국가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인 또는 종족집단에게 이주 노동을 지시했다(Pease G. Y. 1992, 25) 이를 통해 미트마쿠나(Mitmaquna)라고 불리는 이주노동자는 농업을 기본으로 광업, 도로건축, 차스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수행했다. 미타는 국가에 의해 조직되어, 국가를 위해 노동을 수행하지만, 문자 그대로 ‘교대’라는 의미를 가진 미타는 순환제로 이루어져 아이유간의 호수적 관계가 확장된 형태였으며, 쿠스코를 중심으로 재분배 기능을 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국가의 지배 장치와 구분되었다.

다시 말해, 농촌공동체로서 아이유 내부 구성원들이 맺고 있었던 호수적 관계는 임시이주노동을 통해 아이유와 아이유 사이의 호수적 관계로 확장되었고, 타완틴수유의 성립과 더불어 중심으로서 쿠스코와 맺어진 관계 속에서 호수적 관계와 재분배라는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조직화되었다. 각 지역의 자원과 노동력은 호수적 관계에 따라 상호 교환 되는 한편, 역시 호수적 관계에 따라 쿠스코로 이동된 후 각 지역으로 재분배되었다. 즉 자원은 중앙인 쿠스코를 향해 일방향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권력은 아이유로부터 자기관할 토지를 경작하는 노동력을 제공받는 데 대한 응답으로 아이유에게 자원을 재분배했다. 미타는 쿠라카의 관리 아래 아이유 구성원의 노동력을 국가적 차원에서 동원하여 호수적 관계와 재분배 원리를 타완틴수유 전체로 확장시켰다.

정복 초기 스페인인들은 타완틴수유의 각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쿠라카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을 구분하지 못했다. 한 촌락의 수장은 잉카에 의해 임명된 쿠라카와 촌락 내부에서 선출된 쿠라카로 나뉘었다. 전자의 경우 잉카에 의해 임명된 관리로서, 미타 제도에 따라 출신지 이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고, 후자의 경우 각 종족집단 내에

서 의례적 절차를 거쳐 선출되는 경우였다(Pease G. Y. 1992, 21). 쿠라카가 이처럼 두 가지 의미를 지녔던 이유는 타완틴수유의 행정조직 가운데 사야(saya)와 아이유의 수장을 모두 쿠라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타완틴수유의 행정구역은 안티수유(Antisuyu), 친차이수유(Chincaysuyu), 콘티수유(Contisuyu), 코야수유(Collasuyu)의 4개의 수유 아래 와마니(huamani)라는 중범위 구역 수십 개로 구분되었고, 와마니는 다시 2-3개의 사야(saya)로 나뉘어졌다. 아이유는 그 아래 범위의 기초행정단위였던 셈이다. 수유와 와마니는 잉카의 친족이고 위관료로 임명되어 수장의 역할을 했으나, 사야와 아이유의 수장이었던 쿠라카는 중앙권력에 의해 파견된 관리인 경우와 촌락 공동체의 선출직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쿠라카는 아이유와 국가를 매개하며 호수성과 재분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타완틴수유 지방행정제도의 중요한 지위이기도 했다. 호수성이든 재분배든 모든 경제적 교류 이전에 생산을 담당하는 개인을 조직할 수 있는 권력망은 타완틴수유라는 국가 차원도 아니고, 잉카라는 신격화된 인격도 아니라 쿠라카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선출직 쿠라카의 경우 중앙으로부터 받은 자원을 공동체 내에서 재분배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

III. 나가며

타완틴수유는 전형적 이미지에 둘러싸여 있다. 광대한 영토는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다양성은 제국의 중앙집권화가 허용하는 관용에 불과한 듯 느껴진다. 또한 타완틴수유의 이미지 형성에는 20세기 이후 현대적 관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 타완틴수유에는 오늘날 복구해야 할 사회적 원형이 숨겨져 있거나, 절대 되살아나서는 안 되는 저발전의 요인들이 가득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타완틴수유의 전형화가 가지는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러한 전형화는 타완틴수유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방해하고, 타완틴수유의 성립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무화시키기 때문이다. 현재 안테

스 사회의 여러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 타완틴수유는 지금보다 더 역사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타완틴수유를 안데스의 여러 지역 사이에 형성된 권력망으로 이해하며, 쿠스코와 쿠스코 외 주변 지역 또는 주변 지역들 간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지속적인 영토 확장 정책으로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종족집단으로 구성된 타완틴수유는 집권화와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지 힘을 바탕으로 조직되었다. 광대한 영토는 쿠스코에 의해 완전히 장악되지 못했다. 잉카가 교체될 때마다 재정복을 해야 하는 지역도 있었고 쿠라카와의 관계는 호수적 관계, 즉 일반적으로 잉카가 쿠라카를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그러나 동시에 스페인 접촉 직전 타완틴수유로 통합된 안데스 북쪽 지역으로 대규모 이주를 시킬 정도로 중앙권력이 발휘되는 곳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힘으로 직조되는 공간이 타완틴수유였다. 그 두 가지 힘은 이데올로기적,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권력을 둘러싸고 작용했으며, 잉카에 의한 군사적 정복 이후에는 정치 경제적 권력이 타완틴수유를 유지시켰다. 그러한 권력은 타완틴수유 성립 이전 이미 안데스 사회에 자리잡고 있었던 호수적 관계에 기대어 발현되었다. 지역과 지역, 즉 아이유와 아이유는 호수적 관계를 통해 경제적으로 교류했고, 잉카와 쿠라카, 쿠스코와 지역은 경제적 관계를 규정하는 호수성을 바탕으로 정치적 권력망을 구축했다. 중앙권력으로서 쿠스코의 성장은 재분배라는 새로운 원리의 도입과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적 범위가 확대됨을 의미했다.

15세기 전반기부터 16세기 전반기 스페인 접촉 이전까지 약 1세기에 걸친 타완틴수유의 역사는 15세기 전반기까지 안데스 여러 지역에서 발전해 온 집단과 문화권이 처음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한 정치경제적 사건이었다. 타완틴수유가 안데스 지역에 남긴 동질성은 이후 스페인과의 접촉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타완틴수유가 확산시키고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발전시킨 제도들은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의 유용한 도구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미타제도이다.

또한 스페인인의 이해관계에 의해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적 구조 상당부분

이 식민지 시대에도 유지되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난 이후에도 제도의 외형은 바뀌었을지라도 그 원리는 보존되었다. 그렇게 보존된 타완틴수유의 원리가 21세기인 지금 하나의 대안적 사유로서 회자되고 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이유 공동체이다.

그러나 타완틴수유를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이유는 현재 필요로 하는 정치적 발상과 정치적 기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정치적 발상과 정치적 기획의 등장배경과 구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과거의 어떤 요소는 현재에 유용하게 차용된다. 먼 과거의 유산이 바로 지금 유용하게 차용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유산이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타완틴수유의 정치경제적 원리 역시 그러하다.

참고문헌

- 강성식(2008), 「잉카리신화, 안데스의 염원」,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1, No. 4, pp. 139-64.
- 강정원(2014), 「식민 시대 안데스의 미타 제도와 원주민 공동체」,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편), 『라틴아메리카의 형상: 교환과 혼종』, 한울아카데미, pp. 177-214.
- 김은중(2008) 「권력의 식민성과 볼리비아 원주민 사회운동」,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9, No. 1, pp. 29-57.
- 김은중(2015), 「안데스 코뮤니즘, 도래할 공동체?」,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6, No. 3, pp. 103-132.
- 김향섭(2017), 「안데스 원주민 운동과 공동체 경제: 에콰도르 사례를 중심으로」,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19, No. 1, pp. 41-67.
- 박수경(2014), 「누에바 에스파냐의 사회정치적 단위로서의 원주민공동체」,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7, No. 4, pp. 209-235.
- 우석균(2005), 「안데스 유토피아」, 이베로아메리카, Vol. 7, No. 2, pp. 1-30.
- 우석균(2012), 「식민체제와 안데스의 원주민 지배층-잉카 군주의 외교게임과 반식민주의 담론」, 스페인어문학, Vol. 63, pp. 439-465.
- 우석균(2013a), 「호혜의 관점에서 본 잉카의 팽창 잉카의 팽창과 멸망」, 스페인

-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6, No. 2, pp. 227-248.
- 우석균(2013b), 「태양섬의 잉카 시조신화와 통치 정당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Vol. 24, No. 2, pp. 99-118.
- 우석균(2015), 「페루와 잉카 호명의 역사」, 스페인어문학, Vol. 75, pp. 305-326.
- 조영현, 김달관(2012), 「에콰도르 원주민 사상과 세계관의 복원: 수막 카우사이
에 대한 이론적 고찰」, 중남미연구, Vol. 31, No. 2, pp. 127-160.
- 가라타니 고진 (2016), 『제국의 구조』, 조영일 옮김, b.
- 폴라니, 칼(1994), 「제도화된 과정으로서의 경제」, 칼 폴라니(편), 『초기 제국에
있어서의 교역과 시장』, 이종욱 옮김, 민음사.
- 폴라니, 칼(2009), 『거대한 변환』, 홍기빈 옮김, 길.
- Alberti, Giorgio and Enrique Mayer(1974), “Reciprocidad andina: ayer y hoy”, Giorgio Alberti and Enrique Mayer(ed.), *Reciprocidad e intercambio en los Andes peruanos*,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pp. 13-33.
- Burchard, Roderick E.(1974), “Coca y trueque de alimentos”, Giorgio Alberti and Enrique Mayer(ed.), *Reciprocidad e intercambio en los Andes peruanos*,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pp. 209-251.
- Covey, R. Alan(2006), “Chronology, succession, and sovereignty : the politics of Inka historiography and its modern interpretation”, *Comparative studies in society and history*, Vol. 48, No. 1, pp. 169-199.
- D’Altroy, Terence N.(2003), *Los incas*, Barcelona: Ariel.
- D’Altroy, Terence N.(2015). *The Incas*, Malden: Wiley Blackwell.
- Flores Ochoa, Jorge. A.(2005), “Reseñas bibliográficas: Los Incas del Cuzco. Siglos XVI-XVII-XVIII, John Howland Rowe, Instituto Nacional de Cultura, Region Cusco, Multi e Imprenta Edmundo Pantigoso EIRL, 2003, pp. 417”, *Chungará*, Vol. 37, No. 2, pp. 269-271.
- Gallego, Marisa(2017), *La rebelión andina de Tupac Amaru*, Buenos Aires: Editorial Maipue.
- Godoy, Ricardo A.(1986), “The fiscal Role of the Andean Ayllu”, *Man*, Vol. 21, No. 3, pp. 723-741.
- Julien, Catherine. J.(1983), *Hatunqolla : a view of Inca rule from the Lake Titicaca reg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mmels, Ingrid and Karoline Noack(2011), “Los incas y el ayllu en el

- espacio transatlántico : apuntes preliminares para una historia entrelazada entre Perú y Europa”, *Indiana*, Vol. 28, pp. 153-167.
- Mann, Michael(1991), *Las fuentes del poder social*, Vol. I, Fernando Santos Fontenla(trans.), Madrid: Alianza.
- Murra, John V.(1975), *Formaciones económicas y políticas del mundo andino*,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Murra, John V.(1981), “Los límites y las limitaciones del “Archipiélago vertical” en los Andes”, *Maguaré*, Vol. 1, pp. 93-98.
- Pärssinen, Martti(2003), *Tawantinsuyu El estado inca y su organización política*, Ana-María Stahl de Montoya and Pilar Rosselló de Moya(trans.), Lima: Instituto Francés de Estudios Andinos; Fondo Editorial de la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Pease G. Y., Franklin(1979), “La formación del Tawantinsuyu: mecanismos de colonización y relación con las unidades étnicas”, *Historica*, Vol. 3, No. 1, pp. 97-120.
- Pease G. Y., Franklin(1992), *Curacas, reciprocidad y riqueza*, Lima: Fondo Editorial de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 Pease G. Y, Franklin(2010), *Las Crónicas y los Andes*, Lima: Fondo de Cultura Económica.
- Rostworowski de Díez Canseco, María(1988), *Historia del Tabuantinsuyu*, Lima: Instituto de Estudios Peruanos.
- Rowe, John Howland(1946), *Inca culture at the time of the Spanish conquest*, Washington DC: U.S. G.P.O.

박수경

고려대학교
gmfma99@korea.ac.kr

논문투고일: 2019년 03월 12일
심사완료일: 2019년 0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9년 04월 29일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Tahuantinsuyu: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Soo Kyoung Park

Korea University

Park, Soo Kyoung(2019),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of Tahuantinsuyu: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Revista Asia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30(1), 33-60.

Abstract In the mid-15th century, Tawantinsuyu was founded by the Inca that set its base in Cuzco and militarily conquered the surrounding areas. Tawantinsuyu, known as the land of "four quarters" and commonly referred to as the Inca Empire, ruled over 10 million residents and the land that extended 4,000km to the north and south in around 1530. Areas subjugated to Tawantinsuyu maintained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after being conquered by the Incas. Cuzco the central place kept centralization of power while maintaining regional independence. Reciprocity of the Andean society, along with redistribution, function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awantinsuyu. This paper analyzes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of Tawantinsuyu prior to the Spanish contact while focusing on reciprocity and redistribu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of Karl Polanyi and John Murra.

Key words Tahuantinsuyu(Tawantinsuyu), Andes, Inca, Reciprocity, Redistribution